



# 원청교섭

## 비긴즈

2026-  
8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9.18.(금)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 자화자찬보다 반성 먼저 원청교섭 지지부진 문제 해결하라

노동부가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원·하청 교섭 첫 결실”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속노조는 “척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성과를 포장하는 노동부 작태가 민망”하다며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지난 8월 21일 민주노총 원청교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 후 160일이 훌쩍 넘었으나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14개에 불과하다. 교섭을 요구한 전체 사업장 640여 개 중 2%다. 금속노조는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 “잠정교섭부터 시작하라” 교섭 개시와 사용자성 판정 분리 필요

사용자성 최종 판단까지 교섭이 지연되고 장기화될수록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크므로, ‘절차적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 잠정교섭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9월 14일 국회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 장기화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원·하청 교섭의 촉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언제까지 버티나 동희오토 원청 쟁의조정 결론 28일로 연기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9월 14일 동희오토 쟁의조정신청 건에 대해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 2차 회의를 예정했다. 금속노조는 수차례 동희오토 원청에 교섭을 우선 개시하고 그 자리에서 이견을 다루자고 요구했으나, 원청은 노조 요구 무시, 노동위원회 결정 무시로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결국 9월 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동희오토 원청 대상 민주노총 교섭단위 내 ‘유일노조’다.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원청의 교섭불응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조정중지를 내려야 할 사안이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존중하여 현명히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 비겁한 숨바꼭질 멈춰! 벽을 부수고 나아가겠습니다



## 김태훈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제는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우리의 삶과 현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원청인 한국지엠은 여전히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하청업체 뒤에 숨어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는 꼼수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악의적인 교섭 회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촉구했으나, 한국지엠은 오직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청업체가 아닌 진짜 사장 한국지엠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동안 하청업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4~5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부상자를 사내 부속병원조차 거치지 않고 공장 밖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여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안전 프로세스는 하청현장의 문턱에서 완전히 멈춰 섰고, 산재 은폐는 여전히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원청 한국지엠이 책임지지 않는 한 현장의 부상과 위험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청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무려 8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임금체불 사태가 터졌음에도, 6개월이 지나서야 하청업체 대표의 개인 대출로 겨우 원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체불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하청은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원청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발을 빼는 비열한 다단계 착취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생존의 외침 앞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지엠의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벽이 가로막는다면 부수고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지엠은 비겁한 숨바꼭질을 즉각 멈추고 당당히 교섭장에 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사장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고, 안전한 일터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